

#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Review + 간단 해설

## 1.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Review

### 1. 정답률 50% 미만 문제 9문제에 대하여 (메가스터디 추정 정답률 기준)

- 7번 (30%) : 성리학자와 정약용의 본성론 차이 이해
  - 2번 (35%) : 공자의 예(禮) 사상에 대한 이해
  - 14번 (38%) :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비교 이해
  - 3번 (39%) : 듀이의 사상적 입장 이해
  - 19번 (41%) : 아우렐리우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비교 이해
  - 17번 (46%) : 하이에크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 이해
  - 12번 (48%) :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의 의미 이해
  - 18번 (49%) : 이항로와 최제우의 사상 비교 이해
  - 5번 (49%) : 스피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 빨간색 칠한 문제들은 정답률은 낮지만, 틀려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사상가들의 핵심 주장이 정답 선지로 출제되었기에, 다른 선택지는 선택지의 진위판단을 잘 할 수 없었을지라도 “정답”만큼은 명확하게 고를 수 있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 개념을 한 번도 끝내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거나, 국어+수학에서 멘탈이 많이 소진되어 사탐을 볼 때 의욕을 상실한 학생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파란색 칠한 문제는 학생들이 ‘틀릴 만하다’는 생각이 든 문제였습니다. 2번 공자의 예 사상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뜬금없었을 것 같고, 14번은 ‘정형적 분배 원리’라는 말이 윤리와 사상만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었고, 19번의 선지 ㄹ도 3월 모의평가 수준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2. 3월 모의고사에 문제에 대한 생각 + a

분명 ‘까다로운’ 시험은 맞으나 1등급 컷 40~42(추정치)가 나올 만한 시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험지가 수능에 출제된다면 ‘1등급 컷 50은 아니겠다’ 정도지, 1컷 45점 이하의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그래도 만점 백분위 100은 받을 것 같습니다). 19학년도 수능 수학처럼, 국어와 수학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 컷 하락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47~50점을 얻은 학생들은 정말 잘 하셨습니다. 시험을 복기하실 때, 단순히 ‘실수했다’ 내지는 ‘지엽적인 내용을 몰랐다’가 아니라, ‘왜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는지’ 또는 ‘이러한 사고를 왜 하지 못했는지’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신다면 앞으로의 모의평가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2. 2019학년도 3월 학력평가 윤리와 사상 간단 해설

### 1. 삶의 태도에 대한 벤담의 입장 이해 (78%) : 정답 4번

- 공리주의는 에피쿠로스학파와 달리 ‘사회적 쾌락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주장한 사상가라는 사실을 파악하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 2. 공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34%) : 정답 4번

- 공자는 예(禮)의 형식화를 비판하면서 인(仁)의 정신을 담고 있는 올바른 사회규범인 예(禮)를 확립할 것 (=주례(周禮)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 사상가입니다. 공자는 예에 있어서, 형식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갖추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 not 형식 but 인(仁), not only 형식 but also 인(仁))
- 3번 선택지 선택 비율이 높은데(44%), 공자의 정명사상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군주, 신하, 부부, 부모, 자식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예의 표현은 차이가 있지요.

3. 듀이의 기본 입장 이해 (39%) : 정답 2번

- '성장 그 자체만이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 듀이의 절대주의 비판 사상을 알 수 있습니다.
- 2번 선택지는 듀이의 도구주의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수능특강에 선지 내용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수단이나 도구가 되며, 그럴 때 비로소 가치를 갖게 된다고 봄**(윤리와 사상 수능특강 126p)
- 1번은 39%가 골랐는데 사실 왜 이렇게 많은 학생이 골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덕'이 '수단'이 된다는 말이 마음에 안 든(?)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사상가의 입장을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3번은 11%의 학생들이 골랐는데, 듀이는 절대주의를 비판한 사상가입니다.

4. 노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68%) : 정답 5번

- 제시문 자체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 ㄱ. 두 사상가 모두 x. (해설지 참고)
- ㄴ. 두 사상가의 "예(禮)"에 대한 입장 차이를 묻는 좋은 선택지입니다. 노자는 예를 인위적인 것이며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보지만, 순자는 예를 사회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 규범이라고 봅니다.
- ㄷ. 노자의 무위 사상에 해당합니다.
- ㄹ. 이 선택지가 낯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순자는 옳음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이 귀한 이유이며, 그렇기에 인간의 도덕적 교화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5. 스피노자의 기본 입장 이해 (49%) : 정답 1번

- 제시문 자체는 난해하지 않습니다.
- 결국, 스토아-스피노자의 범신론 vs 그리스도교의 인격신론 문제입니다. 스피노자인지 알았더라면, 답을 1번으로 고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필연성의 극복(16%), 내세에 받는 구원(13%), 모든 감정을 버리고(17%) : 스피노자에 대한 뻘한 함정에 많은 학생이 낚인 것으로 보아 아직 개념공부가 미진한 학생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6. 주자와 양명의 입장 비교 이해 (68%) : 정답 5번

- 제시문 독해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정답률이 높았습니다. 5번 선택지는 주자의 입장임을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양명도 리(理)가 곧 성(性)이라고 본다는 사실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양명의 입장임을 파악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4번 선택지가 두 사상가의 핵심 주장과 쟁점에 관한 선지였기에,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소거법으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정약용과 주자의 심성론 비교 이해 (30%) : 정답 2번

- 공부를 제대로 하면 틀리지 않을 부분이고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개념어가 죄다 한자라 거부감이 들고 똑같은 'Wording'에 대한 해석 차이에 관한 부분이라 학생들이 어려워 하는 파트입니다.
- ㄱ. 정약용의 성은 기호입니다. 그 기호 자체에는 선천적인 덕이 내재되어 있지 않지요. 그 기호를 바

탕으로 선한 행위를 반복하여 덕을 후천적으로 형성한다는 것이 정약용 심성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나. 성은 선천적인 것입니다. 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덕을 형성하는 것이지요.
- 다. 인간만이 영지의 기호를 가지므로 맞는 선택지입니다.
- 르. 주자의 입장이므로, 갑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8. 칸트의 기본 입장 이해 (73%) : 정답 2번

- 제시문 분석은 어렵지 않고, 사례를 보니 선행을 했고(의무에 맞는 행위), 지나치는 것은 결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동기에서 그 행위를 했다는 점(의무 의식으로부터 나온 행위)에서 칸트가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는 사실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9. 플라톤의 기본 입장 이해 (62%) : 정답 1번

- 그 유명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 속은 현상계요, 동굴 밖은 이데아계라는 사실은 공부했으면 모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입니다.

10. 루소와 홉스의 사회계약론 비교 이해 (67%) : 정답 1번

- 나. 루소는 주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반면 홉스는 주권을 한 군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다. 사회계약론 사상가라면 모두 동의할,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 라. 홉스는 정치권력이 있어야 평화가 보장되며 정치권력이 없는 상태를 자연상태-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봅니다.
- 르. 홉스는 주권자의 절대권력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11.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 이해 (70%) : 정답 4번

- 이기호발설(이황), 기발이승일도설(이이)에 관한 문제입니다.
- 나. 사양지심은 사단의 한 종류이므로, 사단은 이발기수라고 보는 이황의 입장으로 적절합니다.
- 다. 현실의 정에서는 이기불상리라는 것은 성리학의 기본 명제지요.
- 라, 르. 이이는 모든 정이 기가 발한 것이라고 봅니다.

12.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에 대한 입장 이해 (48%) : 정답 1번

- 2번(15%), 3번(11%)을 고른 학생들은 큰 반성이 필요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퍼즐 속 세로 낱말 (A)에 대한 사상가의 입장을 찾아야 합니다.
- 그리고 5번을 고른 학생(17%)들은 더 큰 반성이 필요합니다. '신에 대한 사랑'만 보고 그리스도교 사상가라고 보고 5번을 고른 것 같은데, 발문에 분명히 '고대' 서양 사상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발문을 똑바로 읽어야 하고, 단어만으로 제시문을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 정답 선지를 꼬아서 내지도 않았습시다. 인간 행위의 궁극적 목적, 즉 **최고선은 행복임 / 행복이란 덕에 따르는 정신(영혼)의 활동임** (윤리와 사상 수능특강 80p)

13. 흄과 로크의 정치적 의무론 비교 이해 (73%) : 정답 3번

- 흄의 혜택설과 로크의 동의설에 관한 문제로, 쉬운 문제입니다.
- 정치적 복종의 의무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도 성립된다고 본다는, 로크의 핵심 주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비교 이해 (38%) : 정답 5번

- 아마 선지를 ㄴ, ㄷ, ㄹ하고 ㄷ, ㄹ로 배열했다면 오답률 1위를 무난히 찍었을 문제입니다. 하지만 ㄴ 선택지가 워낙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낯선 내용이라, ㄴ 선택지에 대해 진위판단을 하지 못하더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배려(?)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시험 상황에서 진위판단을 할 수 없는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나머지 선택지를 잘 판단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ㄱ. 롤스는 기본적 가치는 정의의 제1원칙에 따라 누구나 평등하게 분배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모르겠으면 ㄱ이 3개 있으니 까 맞다고 하고 넘기는 수험생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 ㄴ. 제시문 독해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선택지로 보입니다(물론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다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실 위에서 말했다시피 '정형적 분배원리' '비정형적 분배원리'는 윤리와 사상에서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제시문을 읽어 보면, 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들을 고려하지 않는다(=>천부적 재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원리는 과정적인 분배 원리(=>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와 달리 정형적 원리(=>~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이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고과정을 통해 '노직은 정형적 분배 원리가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배 원리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본다'는 사실을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지요.
- ㄷ. 노직의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 ㄹ. 두 사상이 모두 최대 행복의 원리를 분배 원리로 삼는 것에 반대합니다. 롤스는 이 원리가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무시할 수 있다고 보고, 노직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15. 맹자와 장자의 본성론 비교 이해 (50%) : 정답 5번

- 기출문제 분석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2번 문제와 정답을 내는 사고가 같습니다(본성대로 사는 것이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삶이라는 것은 장자와 맹자의 공통점이라는 사실).
- 역시 감각적 욕망의 제거(25%), 시비의 구별(10%)과 같은 유가, 도가의 뻘한 함정에 빠져드는 학생들이 많다는 점에서 아직 학생들의 공부 미진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16. 지눌의 기본 입장 이해 (65%) : 정답 3번

- ㄴ. 선택지에 낯선 학생이 15% 정도 되는데, 지눌은 돈오(=본성을 깨달음)한 이후에도 습기를 계속 없애는 수양을 해야(=점수)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17. 하이에크와 마르크스의 사상 비교 이해 (46%) : 정답 4번

- 정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제시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문 독해를 하고 나면, 제시문 '갑'이 대체 누구인지를 모르겠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를 출제하실 때 '갑' 제시문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을'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하고 마르크스임을 알기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답이 '을'에서 결정되고, '을' 제시문 독해와 정답 도출 과정은 너무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실제로 갑-을이 바뀌었으면 정답률은 수직상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 1번, 2번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1번 or 2번 중에서 하나는 되고 다른 게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1번과 2번 모두 수정자본주의에서 긍정할 진술이므로 1번이 답이면 2번도 답이고, 그 역도 성립하겠지요.

- 정답은 4번, 좀 허무하지요?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답으로 출제했습니다.
-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잠시 내버려 두고, 아는 것을 확실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8. 위정척사 사상(이항로)와 동학 사상(최제우)의 공통점 파악 (49%) : 정답 3번

- 위정척사는 성리학 사상이고, 동학 사상은 유불선 합일이므로 유교적 가치가 이상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사상의 공통점입니다. 동학이 반대하는 것은 성리학적 신분질서이지, 유교적 가치(충효) 자체가 아닙니다.
- 동학은 불교, 선(도교)의 내용도 수용합니다. (19%), 두 사상 모두 외세 배격입니다. (6%), 위정척사는 성리학적 신분질서를 옹호하기에 만민 평등사상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20%) -> 이와 같이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오답을 고르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19. 아우렐리우스와 아퀴나스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41%) : 정답 4번

- ㄴ(10%). 아우렐리우스는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피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운명의 필연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보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아우렐리우스는 이 모든 것에 '초연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정신상태를 이상적 상태라고 봅니다.
- ㄹ(32%). 아퀴나스가 ㄹ 선택지를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ㄱ, ㄷ을 고른 학생이 32%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선은 진리에 대한 관조로부터 온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알면, 아퀴나스도 신(=진리)에 대한 관조가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퀴나스가 신의 존재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기도하고, 신이 세상을 주재하는 이치를 깨닫기 위한 노력이 곧 신에 대한 관조라는 사실을 알아서 ㄹ 선택지가 옳음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20. 키르케고르와 사르트르 사상의 비교 이해 (63%) : 정답 5번

- 유신론적 실존주의 vs 무신론적 실존주의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지요.
- ㄴ, ㄷ 각각 선지 선택비율이 10% 정도 되는데, 왜 고르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찍어도 왜 이걸 찍는지..
- 키르케고르는 윤리적 삶에서 한 단계 나아가 종교적 단계에서 불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답으로 출제했습니다.

Made by Jaewon Lim

- 대학수학능력시험 윤리와 사상 4회 만점(2016, 2017, 2018,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017,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자원경제학과 입학 (정시 '나' 군)
- 2018,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입학 (정시 '가' 군)
- 2019, 연세대학교 교육과학대학 교육학과 합격 (정시 '나' 군)
-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0.03% (Orbi 칼레 누백 기준, 원점수 396점)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0.08% (고속성장 누백 기준)